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과연 가능할까? |
| 이슈분석 | 뉴시니어를 위한 특화 금융의 필요성 |
| 금융경영브리프 | WM 부문,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 필요
글로벌 VC,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로 투자 확대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혼재
외 환: 불확실성 지속으로 진퇴양난
부동산: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거래 침체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keyoung.shin)

논단

연구위원 김상진(sjkim)

이슈분석

연구위원 윤선영(sunyy)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최제민(jeminchoi)
연구원 김효섭(hyosupk)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수석연구원 최제민(jeminchoi)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과연 가능할까?
- 04 **이슈분석** 뉴시니어를 위한 특화 금융의 필요성
- 08 **금융경영브리프** WM 부문,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 필요
글로벌 VC,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로 투자 확대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혼재
외 환: 불확실성 지속으로 진퇴양난
부동산: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거래 침체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과연 가능할까?

김 상 진 연구위원(sjkim@hanafn.com)

최근 금융회사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에도 디지털자산 규제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사업화 이후 수익성을 우려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사업 환경은 일반 기업의 디지털자산 관련 가치사슬 체계 준비와 대선후보들의 과감한 공약 제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와 비견될 높은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회사는 현재가 아닌 미래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은 위험하니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은 보류?

최근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 회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화두 중 하나는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사업화일 것이다. 사업화 반대 측 주요 근거는 불법 행위에 있어 가상자산 활용,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내 위험 가중,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화 시 수익 창출의 어려움, 불명확한 국내 규제 등이다. 찬성 측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투자의 보편화, P2E, NFT 확산에 따른 디지털자산 활용 폭 확대, 가상자산 규제 완화시 기관투자자 진입에 따른 수익화 가능성, 도입 논의 중인 「가상 자산업권법(이하 ‘업권법)」을 통한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화를 둘러싼 양쪽 논거는 일견 타당하며, 업권법이 국내 금융회사 업무 참여를 명확화하지 않는 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화 논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점의 금융회사 내 논의와 비슷해 보인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가 될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에 찬반이 갈렸고 이를 근거로 일부 금융회사는 지분 참여를, 일부 금융회사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시장 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위치는 어떠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화는 언제 가능하였나?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 트래픽을 유입하고 이를 유지하는 금융회사는 어디인가?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형 금융지주사보다 높은 가치평가를, 시중은행보다 많은 월간 활성 사용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전환도 비대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토대로 도입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디지털자산 사업화,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사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부상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사업화 방향 논의는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여부 논의 당시와 유사

∴ 일반 기업들의 디지털자산 사업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일반 기업들은 신수종
사업으로서
디지털자산 사업화에
전력

이러한 금융회사 내 논의와는 별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주도하거나 이에 지분 참여를 진행하였던 일반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이후의 먹거리로 디지털자산 사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진행된 경쟁적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투자를 넘어, 디지털아트, 콜렉터블, 게임 아이템 등을 통해 NFT를 생성, 유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스테이킹 등 디파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집행하고,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을 기존 플랫폼과 연계 제공해 서비스 이용자가 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부는 와이오밍주 등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가 인정된 지역에 진출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 기업들의 움직임은 디지털자산 생성, 유통, 보관에 이르는 가치사슬체계를 완성 중에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가치사슬의 편익을 강화해 이용자 트래픽을 확대하려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와 비교하자면 가교 은행을 넘어 본인가 획득 및 사업 개시 직전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은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당시
관점에서 검토 가능

그렇다면 앞서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화 논쟁으로 돌아가 임직원은 현재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인터넷전문은행 논의 당시 일부 금융회사가 분사 등 사업 진행을 보류하고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 사업화도 보류하고 지속적인 시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부 지분을 참여한 것과 같이 현행 규제가 허락하는 수준에서 디지털자산 기업과 제휴하고 일부 지분 투자를 진행해 디지털자산 사업 영역에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할까? 아니면 비대면 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선택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 및 자체 플랫폼 생성을 통한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까?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은 일반 기업
대응 및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필수

5년 후 장기 관점에서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관점과 MZ세대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에서 생각한다면 디지털자산 사업화 보류라는 선택은 일단 답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현재 국내 규제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금융회사는 제휴의 방식을 통해 디지털자산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자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

∴ 금융회사 디지털자산 사업은 시장투명화와 고객경험에서부터

그렇다면 전통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온 금융회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각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은 젊은 층 대상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투자수의 비과세, 과세 기준범위 확대 또는 과세 시점 이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가상자산업 제도화, 사업 기회 보장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국내에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ICO 허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책당국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규제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신고수리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고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며 시장 내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일반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자산 생성, 유통, 보관 서비스가 저작권 문제, 증권성 토큰 발행 및 매각 이슈, 보안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및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회사는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현재 JV 형태로 운영 중인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수탁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디지털자산의 가치 사슬에 참여하면서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투명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로 디지털자산의 생성, 운용, 보관 사업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등간 해외송금에 있어 활용 폭이 확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 논의를 참고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실기한 금융회사라면 미래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사업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내
역할은 사업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금융회사는 고객이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자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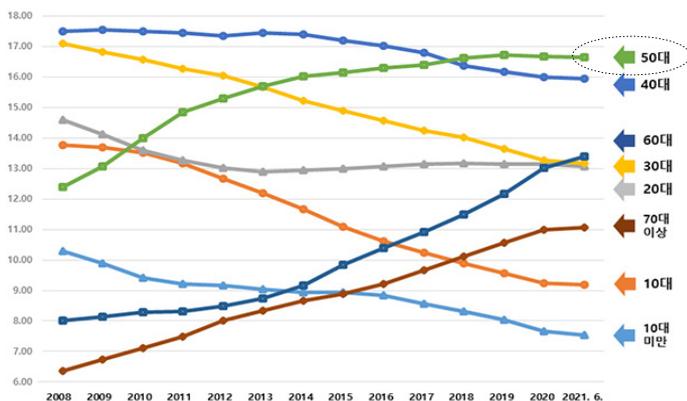
뉴시니어를 위한 특화 금융의 필요성

윤 선 영 연구위원(sunny@hanafn.com)

액티브시니어, 오팔, 올드 등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을 가리키는 다양한 신조어는 시니어마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금융회사도 고령층 포용정책의 실천을 넘어 뉴시니어를 위한 특화 관리에 힘을 쏟는다. 하지만 고도성장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친 세대가 시니어로 유입된 신시장만큼 그들의 금융거래 행태 및 니즈는 기존 세대와 크게 다르다.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맞춤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성장, 이익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임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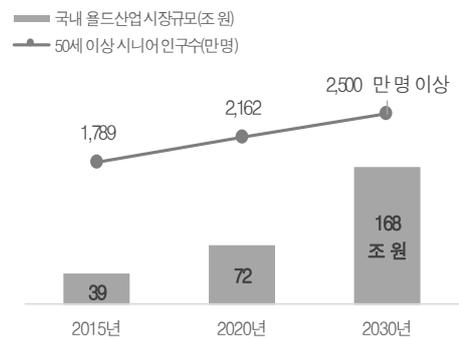
- 2021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50대는 859만 명(16.6%)으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시니어마켓의 잠재 파워를 확인
 - 40대 이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지속 증가하여 10년 뒤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¹⁾
 - 고객 수를 시장의 크기로 규정한다면 50대 이상 시니어마켓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당연한 선택이고, 실제 올드(Young OLD; 베이비부머 주도의 젊은 노인층) 산업은 2030년까지 2020년(72조 원)의 2배 이상인 16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21년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 올드산업 시장규모



주 : '30년 값은 추정
 자료 : 행정안전부(인구수),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센터·보건산업진흥원(금액)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최병관) 기사 인터뷰,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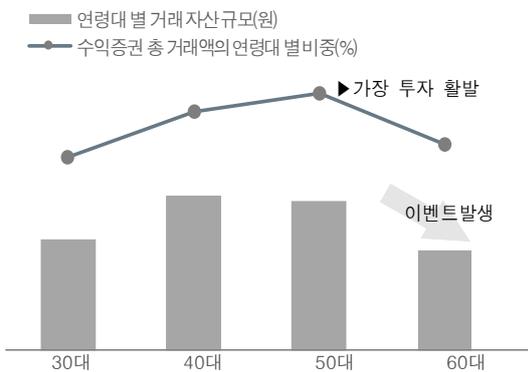
■ 50대 이상 시니어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수익 기여도는 매우 커 적극적 관리가 필요

- 당행 기준, 50대 이상 고객의 거래 금액은 총 거래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거래 금액은 40대 이하 대비 약 2배 높아 수익 기여도가 매우 높은 편
 - 50~64세의 거래액만 50대 이상 전체 거래액의 과반을 넘어 경제적 영향력 확인
 - 50대 손님이 보유한 수익증권(신탁, 펀드, 연금 등)의 거래 금액은 연령대 중 가장 높아 금융 거래에 대한 적극성/관여도 높은 편
- 50대→60대 전환 시 ‘은퇴’, ‘자녀 독립’ 등 생애 중요 이벤트를 거치면서 자산의 변화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

■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뉴시니어(MA시니어)는 금융 트렌드에 액티브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으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신규제안이 유효

- 뉴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금융기관을 신규로 거래했고, 수동적/상황적 요구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기관/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자발적 선택
 - 최근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50~64세 뉴시니어가 증권사를 신규로 거래한 비율은 약 10%이고, 토스, 토스뱅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빅테크 기관의 신규 거래율은 각 5%이상으로 기존 금융회사(각 2~3%대)보다 2배 이상 우위
 - 금융기관 신규 거래의 이유는 스마트폰뱅킹/앱의 이용 편리성, 신규 서비스/기능 선호처럼 신규 채널 및 서비스/기능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

■ 50대 이상 시니어의 당행 거래 현황



주 : 내부 자료로 수치 기재 안함
 자료 : 당행 고객 DB, '21. 10

■ 뉴시니어의 최근1년간 금융기관 신규 거래 경험(%)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0~64세 뉴시니어 금융니즈 설문 (n=1,000), '21. 11

[2] 50~64세 중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MA(Mass Affluent)시니어를 뉴시니어로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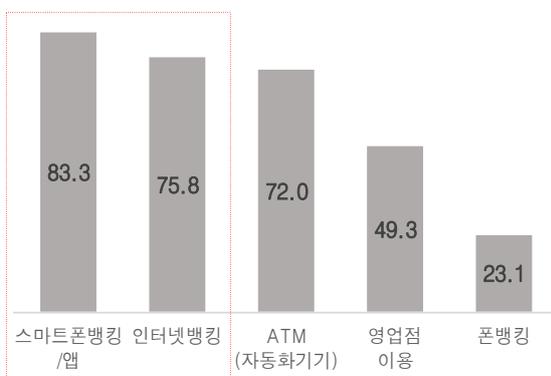
■ 뉴시니어는 디지털 채널에 수용적이고, 향후 디지털 기반의 고도화된 금융서비스 기대

- 50~64세 뉴시니어의 83%는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데, 이는 영업점 이용(49%) 대비 1.7배 높은 수준
 - 뉴시니어 10명 중 9명은 일상에서 온라인 쇼핑, QR코드 인증, 유튜브 시청 등 비대면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보편화
- 금융거래 시 디지털 채널이 활성화된 만큼 IT기술력을 활용하여 보다 고도화되고 개인별 금융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기대
 - 10명 중 6명은 디지털 채널 내 금융기관 및 금융 외 자산 등을 포괄한 통합 재무 관리를 기대
 - AI를 활용한 금융 이력 분석, 즉 개인 성향 및 거래 히스토리에 기반한 ‘나를 위한’ 상품 추천 서비스를 기대

■ 뉴시니어를 하나의 고객군으로 정의하고 일괄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보다 금융니즈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세분화 특징을 추가로 고려하여 맞춤 관리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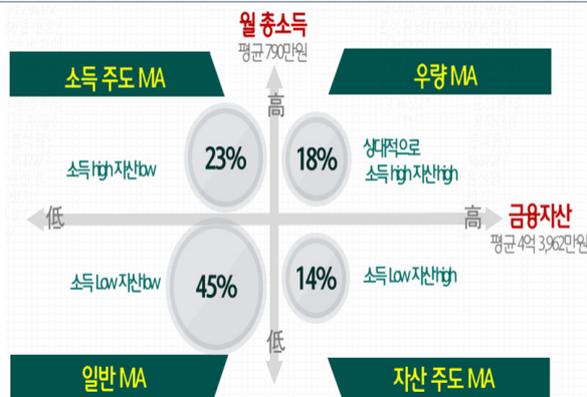
- 50~64세 뉴시니어를 금융자산 규모 및 월 정기적으로 확보되는 소득 수준(유동자금)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면 금융니즈의 차이 발생
 - 소득과 자산이 높은 경우, 적극적 투자 성향을 보임과 동시에 절세 니즈 큰 편
 - 보유자산은 낮으나 월 소득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의 경제적 혜택(수수료 등)에 민감하고 노후 정기적 소득 확보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관심
 - 반대로 보유자산이 많고 월 소득이 낮은 경우, 금융니즈가 낮고 안정적 거래를 추구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생활연계 서비스에 반응
- 그 외 50~64세 뉴시니어의 가치관 및 노후 준비/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니즈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시니어에 대한 일반화 지양

■ 50~64세 뉴시니어 금융채널 이용현황(%)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0~64세 뉴시니어 금융니즈 설문(n=1,000), '21. 11

■ 50~64세 뉴시니어 세분화 안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0~64세 뉴시니어 금융니즈 설문 (n=1,000), '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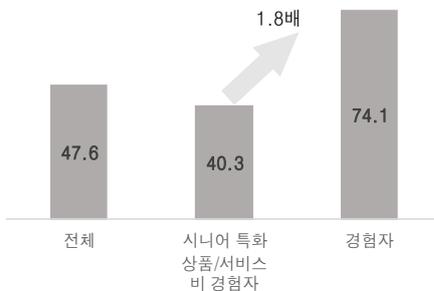
■ 시니어에 특화된 금융 오퍼를 경험할 경우 해당기관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로열티를 강화하는데 긍정적 영향

- 시니어 특화 브랜드 및 마케팅 활동을 경험한 경우, 해당 기관과의 거래 의향이 비 경험자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져 맞춤 금융 오퍼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해석
 - 시니어 맞춤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의향은 48%로 중도적이거나 실제 맞춤 금융을 경험한 경우 거래 의향이 74%까지 높아지고, 이는 비 경험자(40.3%) 대비 1.8배 높은 수준

■ 주요 은행들은 시니어 특화 플랫폼을 구성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나 약 20%만이 시니어 특화 금융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적극적 관리 필요

-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비금융 정보 및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
 -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X, (신한은행) 신한미래설계,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 은퇴설계, 연금, 투자정보 등 금융 콘텐츠와 건강, 여행 등 비금융 정보, 교육 및 제휴 서비스를 제공
 - (하나은행) 100년리빙트러스트 + 하나원큐M: 신탁 중심의 웹플랫폼 및 자산관리, 라이프스타일 등 정보 중심의 웹진을 특화 운영하며 시니어 맞춤 서비스 제공
 - (WellsFargo) 엘더케어프로그램, (First State Community Bank) 호라이즌클럽 : 은퇴 전후 독립된 생활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지원/비금융 서비스 등 일상 케어를 통한 금융거래 충성도 제고
-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등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애 전환기를 맞는 50대 이상의 금융니즈도 달라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맞춤 전략 및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관리체계 마련 

■ 시니어 특화 금융기관 거래 고려율(%)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0~64세 뉴시니어 금융니즈 설문(n=1,000), '21. 11

■ 뉴시니어 특화 플랫폼

<p>골든라이프X</p> <p>- 엘스케어+라이프뉴스+금융정보+ 은퇴설계 웹스톱 플랫폼</p> 	<p>시니어플러스</p> <p>- 금융서비스, 관심정보, 교육/세미나, 건강, 여행관련 제휴 서비스 제공</p> 
<p>신한미래설계</p> <p>- 50+세대 은퇴설계 및 3050대_투자/경제이슈 등 세대 맞춤 정보제공</p> 	<p>리빙트러스트 하나원큐M</p> <p>- 신탁 상품 소개 -자산관리/라이프스타일 정보</p> 

자료 : 각사 웹사이트

WM 부문,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 필요

최 제 민 수석연구원(jeminchoi@hanafn.com)

고객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가 다변화되고 디지털·최첨단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관리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담 매니저가 본연의 자문 업무보다 비자문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 개선 및 고객 저변 확대에 따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성공적 전환을 위해 리더십, 기술, 전략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자산관리 서비스의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¹⁾

-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업은 대면·유선 채널을 통한 개별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고객들의 디지털화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
 - 고도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고객들은 기존의 서비스 방식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편리한 상품제공 서비스와 디지털 경험 등을 희망
- 오늘날 고객들은 획일적인 서비스 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자산 규모·생애 주기·목표 등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선호
 - 예를들어, 상품별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델보다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금액의 크기에 따라 전담매니저(RM)와 고객이 고정 수수료(flat-fee)를 협상하는 방식 등
-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객 만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애널리틱스(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

■ 아시아 지역의 경우 RM 업무 중심의 디지털 전환·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

- 맥킨지에 따르면 WM사의 RM은 과도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와 비효율적인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의 60~70%를 비자문 업무에 할애
 - 자문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30~40%에 불과해 이를 개선 시 생산성 확대가 가능
-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은 RM이 본연의 자문업무에 집중하고 다변화되는 고객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수익 창출에 기여
- 또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WM 회사의 디지털 전환 및 애널리틱스 기술 적용률이
- 높지 않기 때문에 IT 기반 혁신에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가 존재

[1] "Analytics transformation in wealth management", Mckinsey, 202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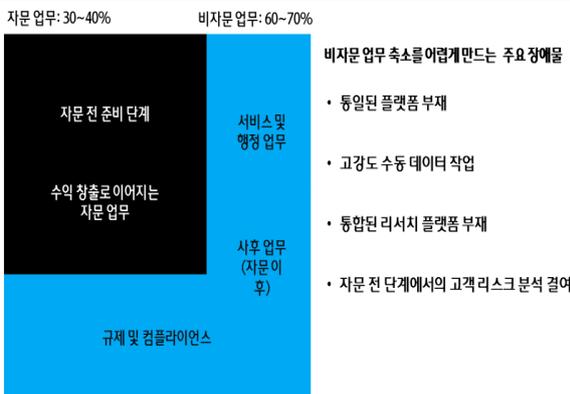
■ 성공적인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리더십·기술·전략·제도적 변화 필요

- 디지털 전환은 소수의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경영진이 전환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수적
-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한 설계가 요구되고 전환 이후 영향력 평가 기준 등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
 - 금융 KPI, 비금융 지표(교차판매 비율, 고객유지율 고객만족도 등)를 활용
- 데이터와 기술은 디지털 전환의 중추로 엄격한 데이터 관리 표준 하에 RM의 업무지식 및 노하우 디지털화, 인공지능 개발, 비자문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
 - 데이터의 정확성, 사용·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며 규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저장·구성 할 수 있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적용을 위한 고급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 특히, RM 역할(고객 관계 형성 및 유지) 보조 및 생산성 향상이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횡단(cross-functional) 스쿼드를 구성
 - 실제로 RM 등 관련 전문가 참여시 데이터 해석과 모델링 효율이 크게 향상
- 전환 이후에는 애자일 스타일(협업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팀 자체 조정(team self-steering), 신속 반복 작업 등)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

■ 국내 은행권, WM사 등에서도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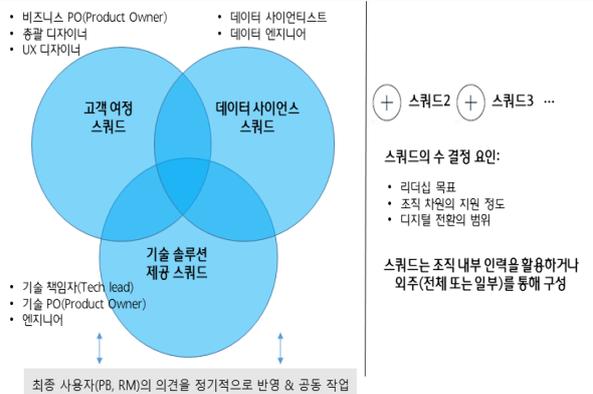
-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필요가 다변화되고 디지털 채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및 아시아권 내 애널리틱스 기반 디지털 전환 성과는 다소 미미
-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오프라인 자산관리 영역의 강점을 디지털화하여 자산관리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존 고객들에게도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필요
 - 전통적인 채널과 디지털 채널 결합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RM의 자문업무와 비자문 업무 비중



자료 : Mckinsey

■ 애널리틱스-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능횡단 스쿼드



자료 : Mckinsey

글로벌 VC,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로 투자 확대

김 효 섭 연구원(hyosupk@hanafn.com)

2021년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VC 투자 규모는 3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상자산 플랫폼 등 기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이어 NFT·메타버스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도 블록체인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돼 글로벌 VC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금융권 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 역량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21년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대상 VC 투자 규모는 3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1]

- 지난해 글로벌 벤처캐피탈(VC)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액은 이전 기간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338억 달러를 기록
 - 이는 '21년 글로벌 VC의 전체 투자금액 7,000억 달러 중 약 4.8% 수준
 - 투자 규모 뿐 아니라 투자 건수(deal round) 역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VC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2019년(1,698건)보다 많은 2,000여 건을 상회
- 블록체인 기업 대상 투자 유형별로는 Pre-seed/Seed 등 최초 투자 유치 비중이 감소한 반면 Series A를 포함한 후속 투자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
 - '21년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 69곳에서 '메가라운드'(1억 달러 이상 조달) 투자에 성공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분야의 '유니콘' 기업도 증가(11개('18) → 43개('21))

■ 특히 최신 트렌드로 자리잡은 NFT·메타버스를 중심으로 VC 투자가 확대된 점에 주목^[2]

- '21년 초부터 블록체인 산업 내 NFT·메타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본격화
 - 실제 지난해 NFT,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약 5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400건 이상의 투자(deal)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
- 이러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21년에만 8개 NFT 관련 유니콘 기업이 탄생
 - Dapper Labs(NFT), Candy(NFT), 애니모카 브랜즈(NFT/게임), Mythical Games(게임), Sorare(NFT/게임), OpenSea(NFT), Forte Labs(게임), Sky Mavis(게임) 등

[1] "2021 Crypto VC's Biggest Year Ever", Galaxy Digital Research, 2022.1

[2] "2022 Digital Asset Outlook", The Block,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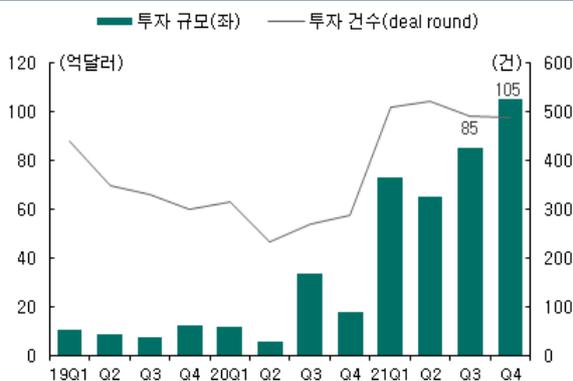
■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VC 투자 수요가 지속 늘어날 가능성

- 거래소·트레이딩 등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지배적이거나 NFT·메타버스를 비롯해 커스터디, DeFi 등 다양한 분야에도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
 - '21년 분야별 VC 투자 비중은 가상자산 플랫폼(42%), NFT/메타버스(17%), 커스터디(11%), DeFi(5%) 순으로 가상자산 플랫폼 투자 비중이 전년대비 20%p 이상 감소
 - NFT 기술은 디지털 아트 시장을 넘어 P2E(돈 버는 게임) 시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블록체인 게이밍 전문업체(애니모카 브랜드 등) 중심으로도 VC 투자가 확대
 - 커스터디의 경우 전통 은행권에서 컴플라이언스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로 BBVA, BNY멜론 등 글로벌 은행들의 투자가 이미 본격화 양상
- 최근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미래성장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됨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VC 투자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Bloomberg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지난 '20년 4,800억 달러에서 '24년 약 8,000억 달러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블록체인이 금융권 내에서도 디지털 핵심 기술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비롯해 블록체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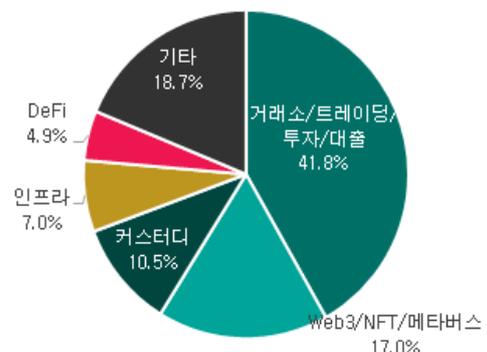
- 디지털 정보저장, 트랜잭션 및 스마트계약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해당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
 - 글로벌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 이전 및 협력 차원에서 DLT(분산원장기술) 및 지급결제 부문 스타트업, 특히 커스터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
 - 국내 은행들도 JV 설립 등을 통해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모습
- 향후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란 틀을 넘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금융사들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 분기별 가상자산·블록체인 VC 투자 현황



자료 : Galaxy Digital Research

■ '21년 블록체인 기업 분야별 VC 투자 현황



주 : '21년 블록체인 VC 투자금액(338억 달러) 기준
자료 : Galaxy Digital Research

금리: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혼재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주요국 금리는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로 급등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반락했다. 국내금리는 글로벌 긴축 우려와 추경 불확실성으로 상승하다 대외금리 하락에 연동되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준의 긴축 가속화가 우려되나, 연준 내부에서 긴축속도에 대한 의견차가 뚜렷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긴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금리는 한은의 2/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주요국 금리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강화로 상승하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며 반락

- 1월 美 CPI(YoY 7.5%, 40년래 최고) 및 PPI(9.7%, 2010년 집계 이래 최고)가 예상을 큰 폭 상회하며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
 - 예상을 상회한 CPI에 이어 블라드 총재의 “3월 50bp 인상은 물론, 긴급회의 소집을 통한 금리인상도 가능” 언급으로 美 10년 금리는 ‘19.7월 이후 처음으로 2%대 진입
- 다만 1월 FOMC 의사록에서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상당한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구체적 일정과 금리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부재
- 중국 1월 PPI(9.1%, YoY)가 전월(10.3%) 대비 상승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시장에서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등 추가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는 평가
- 한편 주요국 시장금리는 예상을 상회한 물가 지표로 급등했으나, 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급속한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맞물려 반락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움직임에 연동되는 가운데 추경 불확실성 이어지며 상승

- 대외금리 상승과 대규모 국고채 입찰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자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2조원)에 이어 추가매입 및 통안채 발행물량 조정 계획을 발표
 - 한편 국회에서 추경 증액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고채 발행부담은 다소 경감
- 회사채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비한 기업들의 선조달 수요로 1월 발행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2월 들어서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로 미매각 속출
- 국내금리는 글로벌 긴축 우려와 추경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하다 대외금리 반락에 연동되며 상승폭 축소(국고 3/10년(%): 2.11일 2.35/2.74 → 18일 오전 2.30/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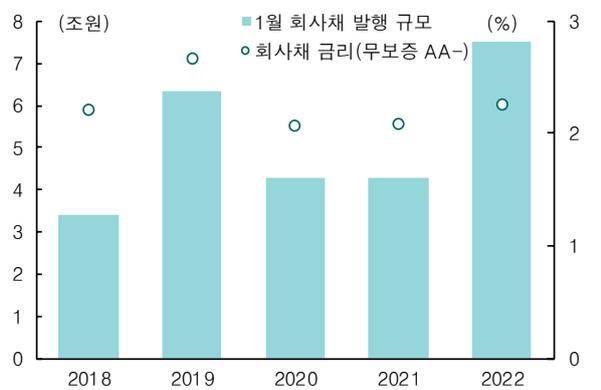
■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 확대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

- 예상을 큰 폭 상회하는 물가가 수개월째 지속되자 연준의 3월 50bp 인상 및 연간 7회 인상론 급부상,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긴축 속도에 대한 의견차가 뚜렷
 - 1월 美 CPI는 에너지(기여도 1.7%p), 자동차(1.5%p) 및 주거비(1.7%p)가 상승을 견인, 금년 미국 물가는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10월 이후에나 안정세 진입 전망
 - 일부 매파 총재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인사들은 공격적 긴축조치가 성장·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해 체계적·단계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
- 이에 따라 3월 50bp 금리인상과 같은 급격한 긴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연 5회(125bp, 상반기 인상 집중) 금리인상 및 3/4분기 QT 개시 예상
-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시장 내 연준의 급격한 긴축 전망도 약화
 - CME 페드워치 연내 7회 금리인상 확률: 35%(2.10일, CPI 발표일)→15%(17일)
- 국내는 비교적 양호한 물가수준과 선제적인 금리인상 조치를 고려 시, 연내 추가 인상은 2회로 예상되나 대외 영향으로 다음번 인상시점이 2Q로 앞당겨질 가능성

■ 국내금리는 러-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2월 금통위 관망세로 추가 상승이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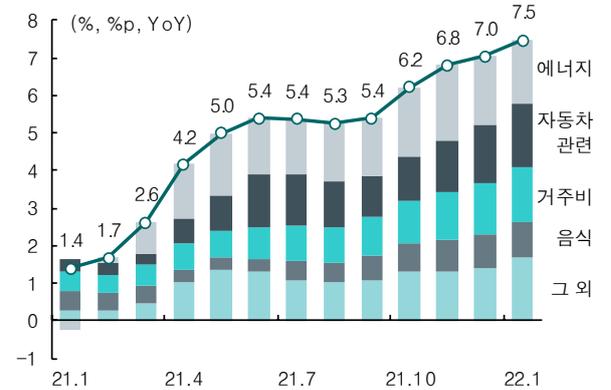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시장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대외발 금리 상승압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대내적으로는 이미 시장금리가 한은의 2/4분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상당부분 선반영함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
 - 2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등장 여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 확인이 필요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15%~2.40%, 2.50%~2.80% 범위로 전망 

■ 연도별 1월 회사채 발행



자료 : 연합인포맥스

■ 미국 CPI 상승률 및 분야별 기여도



자료 : Bloomberg

외환: 불확실성 지속으로 진퇴양난

최 제 민 수석연구원(jeminchoi@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가속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지전 또는 군사적 위협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나 단기간 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여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목하는 가운데 원화는 방향성 모색을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높은 불확실성 속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락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가속화, 러시아발 지정학적 갈등 경계 속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1,190원대 중반에서 1,200원대 초반 내 제한적 움직임을 시현
 - 다만, 2.14일에는 시장 마감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환율이 1,191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이 발생
- 높은 불확실성 국면에서 관망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높은 미국 물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2.16일)설 등으로 1,200원대 진입 시도
- 다만, 1,200원대 이상에서는 고점인식·네고물량·당국 경계 등으로 상단이 눌렸고, 하단은 연준 긴축 및 러시아발 지정학적 갈등 우려 지속으로 지지
 - 환율은 연준 인사 발언, FOMC 회의록과 지정학적 갈등 소식에 따라 등락을 거듭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 지속 및 지정학적 갈등 확대로 강세

- 달러화는 미국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이어지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강세 시현
 - 1월 미국 CPI는 전년동기대비 7.5% 상승(예상치 7.3%)해 40년래 최고치 경신
- 유로화는 ECB의 금리인상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러시아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달러화 및 엔화 선호 등으로 인해 약세
 - 한 때 러시아의 철수 발표에 따른 긴장 완화로 유로화가 낙폭을 축소하였으나 분쟁지역에서의 교전, 미국과 NATO가 철수 사실 없음을 발표해 약세 재차 심화
- 위안화는 사회용자총액 증가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강세, 엔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서방국가간 지정학적 갈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 시현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러시아와 미·EU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
- 러시아발 지정학적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지전 또는 군사적 위협 지속으로 지정학적 불안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 타격 불가피
 - 전면전 확대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러·EU 모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과거와 달리 최근 에너지 수급불안 등 고려시 외교적 해결에 무게가 실릴 전망
- 통상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나, 최근 코로나 이후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상황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증폭될 가능성
 -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이고 EU 가스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원재료인 팔라듐은 세계 1위 수출국(우크라이나도 네온과 팔라듐 주요 수출국)
- 따라서 지정학적 불안 증폭 시 국내 경제도 원자재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 확대, 생산차질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
 - 한국은 OECD 국가중 원유의존도가 가장 높고 반도체 의존도(18%)도 매우 높음
- 특히 공급 차질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기 악화, 대내외 통화긴축발 금융 불안 심화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

■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태의 향방 지켜보는 가운데 방향성 모색 계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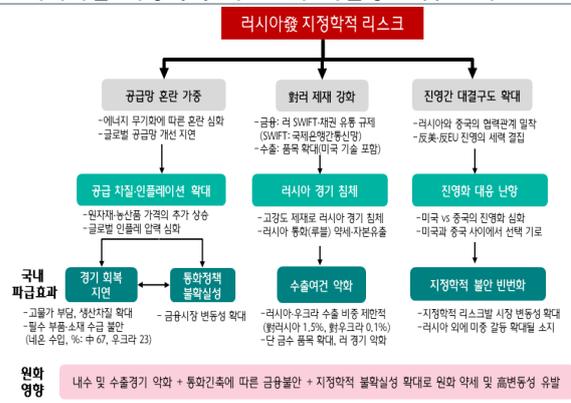
- 연준의 긴축 가속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당분간 원/달러 환율 방향성 모색이 지속될 전망
 -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외교적 해결에 무게가 실리나 국지전 또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향후 향방에 따라 단속적인 변동성 확대될 소지

■ 원/달러 환율과 달러화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경로 및 효과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거래 침체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는 재건축 단지, 중저가 주택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매수심리 저하, 대선 이전 관망세로 인한 거래 활동 위축으로 인해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투자수요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확산되었으나 추가 규제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평가 우려, 자금조달 여건, 대선 이전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침체로 인한 가격 하방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

■ 매수심리 저하 등으로 매매가격 상승폭 축소되고 주간 아파트 가격은 하락 전환

-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기대가 있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되었으나 대선 이전 관망세, 매수심리 저하로 상승폭 축소 지속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63('21.11월) → 0.29(12월) → 0.10('22.1월)
-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의 상승폭이 크게 축소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하는 단독 주택이 오히려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
 - 유형별 상승률(% , MoM, 12월/1월) : 아파트 0.33/0.08, 연립 0.25/0.04, 단독 0.19/0.18
- 투자 수요가 위축되며 거래가 침체된 결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모두 하락세로 전환

■ 투자수요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확산되었으나 전매 제한 등 추가 규제에 유의

-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중저가를 형성하고 대출 규제가 낮아 주택 투자대안처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올해부터 DSR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
 -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22.1월부터 DSR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 이에 대출 규제가 낮고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 부담 증대 우려가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수요가 확산
 -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높아 주택 투자 대안으로 주목
-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준공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
 - '21.9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세제혜택 등을 노린 투기 방지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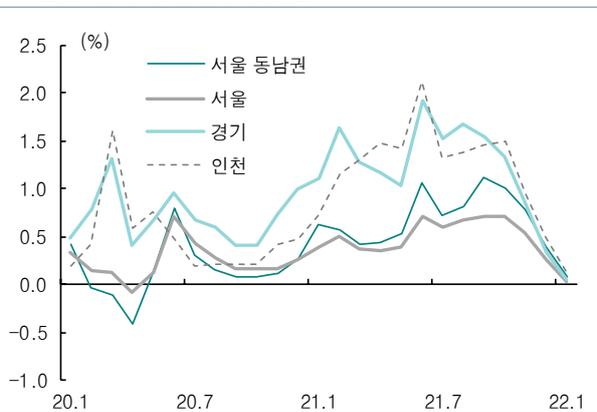
■ 자금조달 여건 악화, 관망세 심화로 거래 침체되며 급매 중심으로 가격 하방압력 가중

- 고강도 대출 규제,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실수요의 신규 매입과 다주택자의 거래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며 거래 침체에 영향
- 또한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가 모두 증가되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혀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고려해 관망세 심화
 -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유도할 수 있는 양도세 완화가 중점
- 다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재건축 중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
 -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 중

■ 한편, 매매 대기로 인한 전월세 수요 증가, 월세화 가속 등은 전월세 가격 상승요인

-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신규 임차수요 감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월세가격 상승폭 축소 지속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46('21.11월) → 0.25(12월) → 0.07('22.1월)
 - 전국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 MoM) : 0.29('21.11월) → 0.22(12월) → 0.16('22.1월)
- 고평가 인식, 비용 부담, 관망세 심화 등으로 매매대기 수요가 임차로 주거유형을 유지하여 전세 및 월세가격 하락 전환을 방어할 전망
- 또한 전세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높아져 전세 대신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며 월세가격 상승에 영향끼칠 전망
 - 대선 공약으로 주임법 개정안 개정, 월세 공제를 논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 대선 후보들의 세제 완화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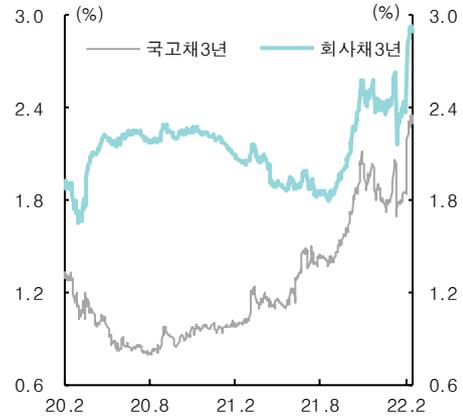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유세	종부세 예외대상 확대하여 부담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부담 경감	취득세 부담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대상 증가 유예	양도세 개편

자료 : 관련 기사 및 대선후보 공식 홈페이지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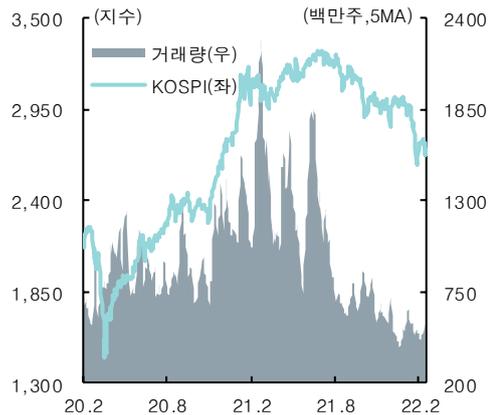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2.21	0.98	1.36	1.48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1월말	1.28	1.50	1.85	2.77	2.19	2.40
2월 11일	1.19	1.50	1.87	2.92	2.34	2.56
2월 14일	1.25	1.50	1.86	2.93	2.35	2.54
2월 15일	1.20	1.50	1.87	2.93	2.35	2.52
2월 16일	1.20	1.50	1.87	2.91	2.33	2.50
2월 17일	1.23	1.50	1.86	2.90	2.30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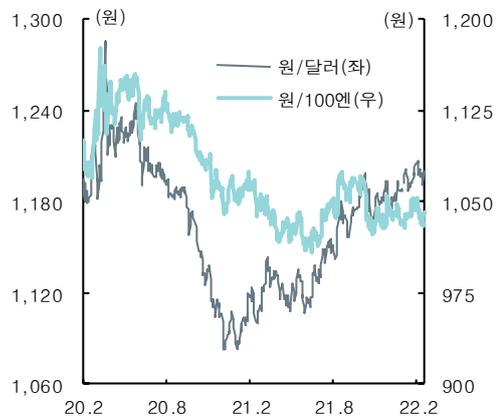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1월말	2,663.3	137,531	434	-7,067
2월 11일	2,747.7	109,926	481	6,081
2월 14일	2,704.5	115,794	616	684
2월 15일	2,676.5	94,358	589	-2,209
2월 16일	2,729.7	83,899	422	-437
2월 17일	2,744.1	118,129	611	6,515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1월말	1,205.5	1,046.0	189.5	13,44.2
2월 11일	1,198.5	1,039.5	188.6	1,359.3
2월 14일	1,191.1	1,029.9	187.3	1,345.3
2월 15일	1,199.8	1,037.7	189.2	1,362.7
2월 16일	1,197.6	1,037.2	189.1	1,363.1
2월 17일	1,197.1	1,041.7	188.8	1,3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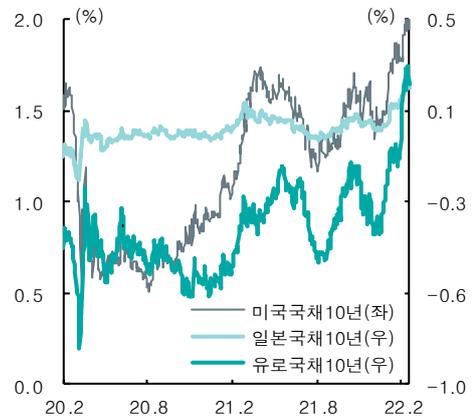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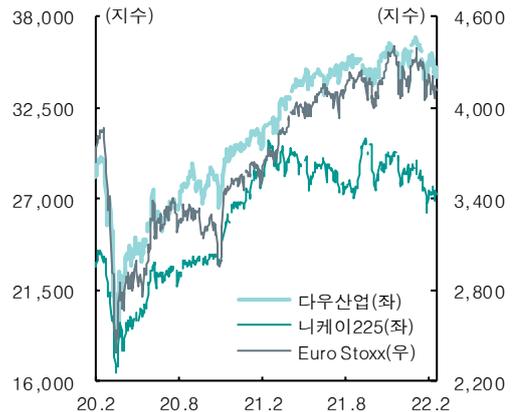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1월말	0.08	0.31	1.18	1.78	0.18	0.01
2월 11일	0.08	0.51	1.50	1.94	0.23	0.30
2월 14일	0.08	0.46	1.57	1.99	0.22	0.28
2월 15일	0.08	0.47	1.58	2.04	0.22	0.31
2월 16일	0.08	0.49	1.52	2.04	0.22	0.28
2월 17일	0.08	0.48	1.47	1.96	0.23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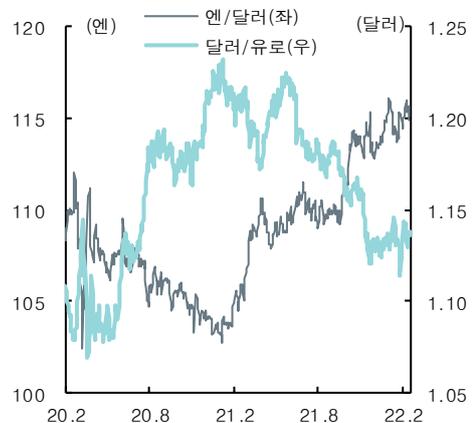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1월말	34,725.5	26,717.3	3,361.4	4,136.9
2월 11일	34,738.1	-	3,462.9	4,155.2
2월 14일	34,566.2	27,079.6	3,428.9	4,064.5
2월 15일	34,988.8	26,865.2	3,446.1	4,143.7
2월 16일	34,934.3	27,460.4	3,465.8	4,137.2
2월 17일	34,312.0	27,232.9	3,468.0	4,113.2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1월말	115.08	1.123	88.4	1,796.4
2월 11일	115.29	1.134	90.3	1,842.1
2월 14일	115.61	1.129	92.7	1,869.4
2월 15일	115.62	1.136	93.1	1,856.2
2월 16일	115.42	1.138	92.6	1,871.5
2월 17일	114.91	1.136	91.9	1,902.0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2월 18일 인쇄

2022년 2월 21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